

모두의 목소리 담아낸 공동의 광장 '아스팔트 부르스'

광주프린지페스티벌 주제공연 21일 금남로 거리 일대에서 선배 무용·국악 등 공연단체 총출동 대규모 시민 참여극 형식 눈길

광주문화재단은 오는 21일 오후 5시 2024 광주프린지페스티벌 서막을 알리는 자체 제작공연 '아스팔트 부르스'를 금남로에서 선보인다.

금남로의 장소성을 살린 작품으로 금남로는 광주민주화운동 이후 광주 시민들에게 단순히 도로의 기능을 넘어 사회적 이슈에 대한 공동의 목소리를 내는 광장으로 태어난다.

'아스팔트 부르스'는 올해 프린지페스티벌 주제공연이자 초연 작품이며, 광주 시민들과 예술인 등 200여명이 참여하는 60분짜리 대규모 이동형 거리극이다. 공연장소는 금남로1가(전일빌딩245앞)부터 금남로 4가(금남로공원)까지다. 공연은 약 250m 거리를 이동하며 펼쳐진다.

신혜원 예술감독이 총괄기획을 맡고, 윤종연 연출, 신재욱 제작감독, 차진광 무대감독, 창작중심 단디 외 여러 제작진이 함께 했다.

이번 공연을 위해 지난 8월 광주 시민배우 및 참여자를 모집했으며, 130여명의



오는 21일 금남로 일대에서 볼 수 있는 2024 광주프린지페스티벌 주제공연 '아스팔트 부르스'의 한 장면. 광주문화재단 제공

시민이 이번 공연에 함께 한다. 참여하는 시민은 학생, 주부, 문화예술 기획자, 회사원 등이며 연령대는 20~70대로 다양하다. 공연을 위해 세 차레 빛고을시민문화관 대연습실에서 워크숍을 열고 안무기와 간단한 동작을 연습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아스팔트 부르스' 주제는 '너를 만나고 싶어'로 제1부 '환대'와 제2부 '아스팔트 부르스'로 나뉘어 진행된다.

먼저, 제1부 '환대'에서 7개 광주 공연 예술단체가 금남로 1가~4가 도로 곳곳에 흩어져 관객들을 맞이하기 위한 무대를 20분간 펼친다. 비상무용단(대표 박종

임), 나빌레라 예술단(대표 한명선), 빛고을댄서스(대표 신승훈)가 각각 현대무용, 한국무용, 스트리트댄스로 관객의 눈을 사로잡는다.

또 모마드(대표 배하림)와 퍼커션팩토리 노노(대표 김누리)가 현악4중주와 퓨전국악을 선보이고, 우물안개구리(대표

성민걸)와 줄리브라스밴드(대표 장현성)가 경쾌한 인디음악과 브라스 연주로 공연의 서막을 알린다.

제2부 '아스팔트 부르스'는 △거리에서 △후퇴 △너를 만나고 싶어 I·II 등 5장으로 구성된다. 일상의 통제에 맞선 시민들이 저항하고 연대하면서 해방을 맞이한다는 내용이다. 물과 꽃가루, 크레인을 사용해 공중무대가 펼쳐진다.

특히 전통타악그룹 일수(대표 고창길)가 30여명의 전문 징수와 함께 130여개 징의 가락만으로 만든 창작곡을 연주하며 커다란 울림을 만드는 명장면을 연출한다.

제15회 광주비엔날레 주제인 '판소리, 모두의 울림'을 거리공연으로 풀어내자는 의도가 담겨 있다. 2부 공연 역시 금남로 1가에서 4가까지 도로를 이동하면서 약 40분간 펼쳐진다.

한편, 2024 광주프린지페스티벌 주제는 '어쩌다 마주친___'으로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어쩌다, 우연히 마주치는 거리 공연을 함께 즐기자는 의미를 담았다. 올해 프린지는 '거리예술축제(9월 21~22일·광주비엔날레 일대·금남로)'와 '스트리트댄스 축제(9월 28~29일·광주광역시청 야외음악당)' 등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

문화통plus 가을호 발간

함평 내동마을 사연 조명

광주문화발전소가 발행하는 문화통plus(발행인 지영원·사진) 가을호가 출간됐다.

통권 52호로 발행된 이번 호에서는 광주비엔날레 창립 30주년을 맞아 시내 31개 갤러리에서 개최되는 파빌리온 프로젝트 가운데 금봉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개혁기방 이후 30년의 중국미술을 압축해 보여주는 중국관을 집중, 취재했다.

장기시리즈 1박 2일에서는 진주정씨 650년 집성촌인 함평군 월야면 월악리 내동마을을 찾았는데 이 마을은 임진왜란 당시 범성포 앞바다에서 순절한 12명



의 부녀자 가운데 8명이 순절, 팔월부 정려와 사인정, 월호정, 삼세삼강비 등 역사유물에 얽힌 사연을 소개했다.

또 이달에 만난 예술인으로 제29회 한밭전국국악대회 무용부 대통령상 수상자인 김지원 교수(단국대학교 대학원 문화예술경영대학원)를 인터뷰했다. 이외에도 인기 칼럼니스트 조용현의 '독천낙지' 이야기, 맛 칼럼니스트 조정일의 음식으로 읽는 문화 '생강', 해외취재 관광 대국 '튀르키예'를 가다' 등 읽을거리가 풍부하다. 도선인 기자

“청소년 진로체험 통해 예비 음향 예술가 키운다”

ACC 방과 후 '예비전문인교육'

방과 후 청소년들이 음향 예술가라는 흥미로운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오는 10월 2~30일까지 4주간 매주 수요일 문화정보원 B2 미디어실에서 청소년 진로체험 프로그램 '방과 후 ACC 청소년 예비전문인교육-사운드 아티스트'를 운영한다.

'방과 후 ACC 청소년 예비전문인교육'은 문화예술 관련 진로를 체험해 볼 수 있는 심화형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이

관심 있는 분야의 예비 문화예술 전문인으로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기획됐다.

'사운드 아티스트' 프로그램에서는 현직 음향 예술가와 함께 참가자가 소리를 예술 작품으로 연출하고 전달하는 음향 예술가(사운드 아티스트)가 돼 작품을 만들어 볼 수 있다.

또 작품 제작에 필요한 장비와 다양한 기술을 배우며 직접 소리를 만들고 실전에 활용하는 방법도 익힌다.

특히 마지막 시간에는 직접 제작한 음악을 ACC의 '입체음향 제작실'에서 듣고 공유하며 소리와 음악을 다룰 미래 전

문가로서의 체험 시간을 가진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은 ACC 누리집(www.acc.go.kr)에서 수강 신청을 하면 된다. 수강생은 선착순으로 15명을 모집하며 교육비는 무료다.

자세한 내용은 ACC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강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은 "우리 청소년들이 방과 후 교육을 통해 음악을 직접 만들며 창작의 기쁨을 느끼길 바란다"면서 "ACC는 청소년들이 문화예술 전문가로 성장하는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적극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도선인 기자

2025년도 센터 연구과제 공모 안내

전라남도 지역 환경현안 해결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연구추진을 위하여 2025년 우리 센터가 수행할 연구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 9. 6.

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장 김은식

1. 사업 내용

- 추진목적
 - 환경정책 방향 및 지역 환경현안과 밀접한 연구과제를 발굴하여 환경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연구과제를 공모·선정
 - 지역 환경현안 문제 해결, 센터 비전 및 사업목표 달성, 지역 환경개선에 실질적 기여 가능한 연구과제 등 현안문제와 부합하는 과제 발굴·선정
- 2025년 연구개발사업 기간 및 사업비
 - 사업기간 : 2025. 2. ~ 2025. 11. (10개월, 선정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비 : 200,000천원 (5개 내외 추진, 과제 개수 및 사업비 등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추진 방향
 - 최근 환경이슈를 기반으로 지역별 환경현안 해결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과제 발굴·선정
 - (센터 대표과제 선정) 지역주민 관심·시급성 높은 현안과제에 대한 구체적해결방안 제시·문제해결형 브랜드(Brand) 과제 발굴·선정
 - (네트워크 기반 공동 협업과제 발굴) 지역 공동 환경문제 또는 점적지역·광역화된 환경갈등 해결을 위한 전국 또는 권역 단위 공동 연구과제 발굴·선정
 - (기초연구 지원) 단순 모니터링 등 기초조사사업 지원
 - (융역성 과제 지원) 각종 법정 기본계획·시행계획·타당성 조사 과제 등 지원

○ 공모분야

구분	연구과제 공모 분야	비고
환경정책 연구	○ 전남지역 환경 현안 해결 및 환경정책 수립에 기여·반영될 수 있는 연구과제 ○ 지자체 조례·계획 등 연구성과가 명확히 제시된 연구과제 ※ 각종 발령 가능계획·시행계획·타당성 조사 등 지자체에서 직접 용역사업 발주를 통해 추진되어야 할 과제 제외	
조사·연구	○ 전남 지역 환경 현안 파악 및 해결 등 지역 환경 현안과 부합되는 연구과제 ○ 산업단지 대기오염물질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한 연구과제 ○ 장기 미래성 현안 및 시급성이 높은 연구과제 ※ 단순 모니터링 등 데이터 확보를 위한 기초조사사업 등 단순 조사과제 제외	
환경기술 개발연구	○ 전남 지역 기업에 필요한 실용화 기술개발 및 기업체 현장 적용 가능한 기술 개발 연구과제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흡수원 확대, 토목·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분야 및 산업단지 폐기물 자원화 등 실용·실용화 연구과제 ○ 전남 지역 환경개선 및 오염 예방·저감에 필요한 현안관리 프로세스 기술 개발 연구과제 ○ 특허 출원·등록, 논문 등 연구성과가 명확히 제시된 연구과제	
산학협력 연구개발	○ 참여기업에서 총 연구비 30%이상 부담(연구비 15% 이상) ○ 참여기업에 필요한 기술개발, 기업 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예방·저감하기 위한 공정개선, 방지시설 개선 등에 관한 기술개발 연구과제	

2. 신청 방법

- 신청대상자 : 행정기관, 사회단체, 대학교, 시민 등 누구나 과제 제안 가능
- 신청기간 : 2024. 9. 6.(금) ~ 9.25.(수), 20일간
- 신청서식 : "2025년 연구개발사업계획(안) 제안서" (센터 홈페이지 http://www.ingec.or.kr 참조)
- 제안서 신청 방법
 - 센터 홈페이지에 첨부된 해당 서식을 작성하여 우편, 방문, E-mail로 신청 (접수 마감일 18: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우편 및 E-mail 접수시 센터로 사진 연락)
- 제안서 작성 요령(유의 사항), 선정 절차 및 일정, 연구과제 선정 심사·평가 기준 및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센터 홈페이지 http://www.ingec.or.kr 참고

3. 기타 제출서류의 수정·보완 방법

- 연구과제 공모·선정에 따른 제안 사항은 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및 센터 세부 운영 규정 준용
- 선정된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필요시 수정 및 보완 요구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센터 연구협력실로 문의 바람.
- 전화 : 01-669-6782 ~ 6785 · E-mail : jetec2005@hanmail.net
- 주소 : 여수시 대학로 50(문덕동) 전남대학교(여수) 산학연구관 217호 (우59026) 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빌려준돈**
공사대금 **투자금**
장비대금 **약정금**
전세금 **임대료**
부도어음 **받아드립니다** **구상금**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안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주세요!!

010-5679-0990, 062)714-2846

광고문의

팩스 062)519-0709
지동 062)519-0710

全南日報

해산 및 채권신고 공고(2차)

본 법인은 2024년 08월 27일 임시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고 2024년 08월 29일 해산등기를 완료하였는 바, 본 법인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본 공고 게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액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간내에 제출이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2일
사단법인 함수윤한봉기법사업회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205번길 10-1 (시산동)
청산인 김은경

고퀄리티(4K) 저렴한 가격
드론타임 드론촬영편집

스포츠행사/축제/산악현장/호텔/펜션 학교/부동산광고·분양/지적도 선박특수촬영/생생시설/양식장 아파트/교회 웨딩/이벤트/(웹)드라마 등

드론타임 010-5681-8084